

『鄉藥集成方』 중 「傷寒門」의 본초분석을 통해 본 朝鮮前期 鄉藥醫學

姜延錫* · 安相佑

*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The Study of the Hyangyak in the Early Chosun through Analyzing the Botany of 「Sanghanmun」 in 「Hyangyakjipseongbang」

* Kang Yeonseok ·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ine mainly using the Hyangyak(鄉藥) in the early Chosun by analyzing the text in 「Hyangyakjipseongbang(鄉藥集成方)」 and comparing it with other medical books. To start out this grand investigation, the research was focused on 「Sanghanmun(傷寒門)」, Vol.5-8 of 「Hyangyakjipseongbang」.

The conclusion made in this study is as follows:

1. All of the prescriptions in 「Sanghanmun」 was made up of the Hangyak listed in 「HyangyakBoncho(鄉藥本草)」, Vol.76-85 of 「Hyangyakjipseongbang」.
2. The main purpose of 「Sanghanmun」 was to make sure it was easy to use for people with no medical backgrounds.

To have a more specific understanding on the medicine mainly using the Hyangyak, further research should be done on how the category of the Hangyak changed. This should be done by comparing the books written after the 「Hyangyakjipseongbang」, and also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age of prescriptions in 「Hyangyakjipseongbang」.

Key words : Hyangyak, Hyangyakjipseongbang, Sanghanmun

I. 序 論

논자는 앞선 연구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麗末鮮初의 시기에 「鄉藥」과 관련된 여러 醫書들이 출판된 것에 주목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였다.¹⁾ 동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鄉藥集成方』의 「鄉藥本草」는 여말선초의 시기에 조선에서 생산되거나 재배가능한 鄉藥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당시의 조선과 중국의 本草 및 炮制 지식을 총망라하면서 조선에서의 활용성을 높여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향약집성방』이 독특하게도 方書類 醫書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방대한 분량의 본초를 함께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굳이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본초를 덧붙인 것도 의문이거나 과연 여기에 기술된 본초가 본문의 처방에 이용된 본초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연관성이 없다면 굳이 같이 책으로 묶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잇따르게 되었다.

만약 「향약본초」와 『향약집성방』의 본문에 사용된 본초들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향약집성방』은 「鄉藥」이라는 범주 내에서 치밀한 사전계획과 기초조사 아래 진행된 의학적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재평가받아야 하며, 그간 학계에서 진행했던 『향약집성방』에 대한 피상적인 평가들은 재고되어야 한다.²⁾

이에 논자는 『향약집성방』 텍스트에 대한 분석 및 기존 의서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조선전기 향약의학의 독특한 모습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첫 단추로 『향약집성방』 중 「상한문」과 「향약본초」에 실린 본초를 비교하여, 「상한문」은 「향약본초」에 기재된 향약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여 치료하는 鄉藥醫學 저술임을 알게 되어 본 논문을 통해 보고하게 되었다.

II. 本 論

『傷寒論』은 한의학의 臨床醫學, 특히 外感病의 病證論治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처방의 구성과 본초의 약리를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서적이요, 「傷寒」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많이 있으므로 『향약집성방』의 본초 분석에서도 가장 먼저 그 대상으로 삼았다.

「상한문」의 분석에서도 傷寒에 대한 醫論이라든가 處方의 비교, 方解 등은 이후의 후속연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본 논문에서는 「향약본초」의 연구에서 진행된 鄉藥의 범주와 『향약집성방』의 본문 가운데 하나인 「상한문」에서 실제 사용된 약재를 비교하는 것으로 연구를 일단락 지었다.

1. 당시 조선에서 生産되거나 栽培되는 藥材를 중심으로 기술함

표 1은 「향약본초」에는 기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증류본초』에는 기재된 대표적인 약물 몇가지를 적어 놓았다. 丹砂, 朴消, 禹餘糧, 雄黃, 石硫黃, 雌黃, 辰砂, 陽起石, 礬石, 砒霜, 甘草, 木香, 巴戟天, 黃連, 肉蓯蓉, 丹參, 麻黃, 貝母, 狗脊, 紫菀, 敗醬, 防己, 高良薑, 薑黃, 肉豆蔻, 白豆蔻, 附子, 烏頭, 天雄, 甘遂, 何首烏, 骨碎補, 連翹, 山豆根, 桂, 辛夷, 丁香, 沈香, 乳香, 蘇合香, 檳榔, 猪苓, 烏藥, 沒藥, 龍眼, 大腹, 巴豆, 蘇方木, 益智子, 龍骨, 犀角, 眞珠, 五靈脂, 枇杷葉 등의 약물이 그것이다.

사실상 위에 적어놓은 甘草, 桂, 麻黃, 附子, 黃連 등의 본초가 없는 本草書는 전무후무한 것이며, 「향약본초」의 독특한 점이면서도 단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1)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중 「鄉藥本草」의 특성과 성취,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8/1(통권8호), 2002, pp.17-18.

2) 강연석, 안상우, 앞의 논문, 2002, p.18.

표 1. 『증류본초』에는 있으나 『향약본초』에는 실지 않은 약재

石部上品	丹砂, 朴消, 禹餘糧 등
石部中品	雄黃, 石硫黃, 雌黃, 辰砂, 陽起石 등
石部下品	礬石, 砒霜 등
草部上品之上	甘草, 木香, 巴戟天 등
草部上品之下	黃連, 肉蓯蓉, 丹參 등
草部中品之上	麻黃, 貝母, 狗脊, 紫菀, 敗醬 등
草部中品之下	防己, 高良薑, 薑黃, 肉豆蔻, 白豆蔻 등
草部下品之上	附子, 烏頭, 天雄, 甘遂 등
草部下品之下	何首烏, 骨碎補, 連翹, 山豆根 등
木部上品	桂, 辛夷, 丁香, 沈香, 乳香, 蘇合香 등
木部中品	檳榔, 豬苓, 烏藥, 沒藥, 龍眼, 大腹 등
木部下品	巴豆, 蘇方木, 益智子 등
人部	
獸部上品	龍骨 외
獸部中品	犀角 외
獸部下品	
禽部上品	
禽部中品	
禽部下品	
蟲魚部上品	眞珠 외
蟲魚部中品	
蟲魚部下品	五靈脂 외
果部上品	
果部中品	枇杷葉 외
果部下品	
米穀部上品	
米穀部中品	
米穀部下品	
菜部上品	
菜部中品	
菜部下品	

『상한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의 六經病證과 그에 따라 麻黃湯, 桂枝湯, 葛根湯, 白虎湯, 承氣湯, 柴胡湯, 理中湯, 四逆

湯, 當歸四逆湯 등의 유명한 처방 및 麻黃, 桂枝, 葛根, 石膏, 大黃, 柴胡, 乾薑, 附子, 吳茱萸 등의 본초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유명한 처방에 사용되는 본초들은 『향약본초』에 실리지 않았으며, 『상한문』에조차 사용되지 않았다. 이 결과 『향약집성방』의 『상한문』은 『향약본초』를 토대로 하여 鄉藥을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고 치료에 임한 향약의학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학에 있어서 추상적인 의학이론의 전개와 달리 본초는 실제 사람에게 투여하는 매우 실용적인 단계이다. 그 의학에서 어떠한 약물을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의학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향후 처방들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더욱 필요하다.

표 2. 『향약집성방』 『상한문』과 『상한론』의 사용 본초 비교

『향약집성방』 『상한문』		『상한론』
사용한 본초	사용하지 않은 본초	
薑	麻黃	麻黃
豉	桂枝	桂枝
梔子		葛根
大黃		石膏
人蔘		大黃
		柴胡
蔥		乾薑
葛根		附子
地黃	附子	附子
芍藥		吳茱萸
黃芩		芍藥
	甘草	甘草
升麻	豬苓	豬苓
石膏	禹餘糧	禹餘糧
柴胡	龍骨	龍骨
半夏		
陳皮		
등	등	등

2. 백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도모함

「상한문」은 『향약집성방』 전 85권 가운데 5-9권에 해당된다.³⁾ 『향약집성방』의 본문들은 맨 앞부분에 ‘《○○○》論曰’, 또는 ‘《○○○》統論曰’로 시작하면서 각 문들의 의론(醫論)을 기술하고 그 뒤에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서 의론과 처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침구법은 각 세부항목의 뒷부분에 실려 있다. 대부분의 조문에서 의론은 『內經』이나 『傷寒論』 등의 經書보다도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婦人良方大全』 등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성혜방』이나 『성제총록』을 인용한 것은 국가통치의 수단으로 제작된 이 책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셈이다.

「상한문」 역시 “《聖濟總錄》統論曰”로 시작하고 있으며 뒤이어 치료방법에 따른 ‘可形證’ 6가지와 ‘不可形證’ 5가지 항목, 33가지의 ‘傷寒 病證’ 및 12가지의 ‘傷寒後 病證’을 기술하고 있다.⁴⁾

우선 『향약집성방』에는 鄉藥을 대상으로 한 의서이기 때문에 향약이 아닌 본초와 그러한 본초가 들어간 처방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상한문」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조선전기의 향약의학은 단지 향약만을 이용하여 처방을 구성하고 치료에 임한 의학이라 정의 내릴 수만은 없다.

『향약집성방』의 「상한문」에는 향약이 아닌 본초와 처방을 뺀 이외에도 六經病證에 대한 언급마저 빠져있다. 단지 『상한문』의 그 유명한 처방들을 신지 않았더라도 傷寒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六經病證조차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의해 만든 의서로서 어찌 보면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앞서 「향약본초」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향약집성방』은 국가통치의 수단으로 의서를 편찬하였다고 본다면 지방관리들이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돕기 편리하

도록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이론을 애초에 배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상한문』에 익숙한 의사들 눈에는 오히려 可寒形證, 不可汗形證으로 시작하는 『향약집성방』의 「상한문」 체계가 익숙치 않아 보이겠지만, 의학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는 지방관리의 입장에서 병든 백성들을 도와주는 정도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유효한 체제라 생각된다. 당장 백성들이 추위에 몸을 상하였을 때 땀을 낼 것인지 아닌지, 토할 것인지 아닌지, 설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 따뜻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 소변을 누게할 것인지 아닌지 등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이론으로 무슨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六經辨證’이나 ‘脈診’이나 하는 의학이론은 ‘四氣五味’, ‘升降浮沈’, ‘引經報使’나 하는 본초이론과 함께 의학을 특별히 더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많다.

『향약집성방』 「傷寒門」의 체제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표 3과 같이 『동의보감』 「寒門」과 비교해 보았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의 傷寒門의 체제를 비교해 보면 『동의보감』은 매우 정연하면서도 상한에 대한 모든 논의를 다 포함하고 있다. 단지 『동의보감』이 후대에 나온 책이기 때문은 아니다. 『향약집성방』이 편제에 있어서 모범으로 삼았던 『太平聖惠方』의 경우도 傷寒絞論, 辨傷寒脈候, 傷寒受病日數次第病證에 이어 辨太陽病形證, 辨陽明病形證, 辨少陽病形證, 辨太陰病形證, 辨少陰病形證, 辨厥陰病形證. …, 傷寒三陰三陽應用湯散諸方, … 등의 내용으로 상한을 설명해나간 다음에 『향약집성방』과 같은 治傷寒中風諸方, … 의 순서로 상한을 기술하고 있다. 즉 『향약집성방』에서는 脈診과 三陰三陽이라는 전문의학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명백하다.

3) 『향약집성방』의 9권 마지막 부분에는 부록처럼 癖溫方이 붙어 있다.

4) 표 3 참조

표 3. 『향약집성방』 「傷寒門」과 『동의보감』 「寒門」의 체재 비교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可汗形證	不可汗形證	寒(上)	寒(下)
可吐形證	不可吐形證	冬爲傷寒	傷寒煩渴
可下形證	不可下形證	傷寒號爲大病	傷寒發狂
可火形證	不可火形	兩感傷寒爲死證	傷寒結胸
可水形證	不可水形證	脉法	傷寒痞氣
可溫形證		傷寒變熱	傷寒除中證
中風傷寒	傷寒時氣	傷寒傳經	傷寒自利
傷寒痲痺	傷寒結胸	傷寒或愈或死日期	傷寒吐衄
傷寒潮熱	傷寒譫語	傷寒大法	壞證 百合證
傷寒煩渴	傷寒煩躁		過經不解
傷寒厥	傷寒頭痛	太陽六傳	傷寒遺證
傷寒喘	傷寒陰陽易	六經標本	熱入血室證
傷寒陰毒	傷寒陽毒	太陽形證用藥	差後昏沈
傷寒兼食毒		陽明形證用藥	狐惑證
傷寒發斑	傷寒發黃	少陽形證用藥	傷寒差後雜證
傷寒發豌豆瘡		太陰形證用藥	
傷寒發狂	傷寒剛症	少陰形證用藥	
傷寒嘔吐	傷寒鼻衄	厥陰形證用藥	傷寒治法
傷寒吐血			傷寒可吐證
傷寒心腹痞滿	傷寒心腹脹痛	傷寒陽證	可下不可下證
傷寒下膿血痢	傷寒口瘡	傷寒陰證	可和不可和證
傷寒狐惑	傷寒下部蠱瘡	傷寒表證	傷寒凶證
傷寒大便不通	傷寒小便不通	傷寒裏證	傷寒不治證
傷寒熱毒攻眼	傷寒百合	傷寒半表半裏證	傷寒十勸
			中寒證
傷寒後來勞	傷寒後勞復	傷寒陰厥	外感挾內傷證
傷寒後食復	傷寒後骨節煩疼	傷寒陽厥	瘧冷
傷寒餘熱不退	傷寒後虛煩	傷寒陰毒	
傷寒後虛羸盜汗 (附: 虛汗)		陰盛隔陽	傷寒有五種
傷寒後心虛驚悸	傷寒發嘔噦	陰極似陽	傷寒十六名
傷寒後不得睡	傷寒後虛損夢洩		傷寒相類四證
傷寒後雜病		傷寒雜證	傷寒賦
		傷寒頭痛身疼百節痛	
附: 辟溫病方		惡寒惡熱往來寒熱	
可灸形證	不可灸形證	傷寒看面目舌色	
		傷寒合病	
		傷寒併病	
		傷寒煩燥	
		傷寒戰慄	
		傷寒動悸	
		傷寒動氣	
			單方
			鍼灸法

『향약집성방』 「상한문」의 체제를 분석해본 결과 『향약집성방』은 국가통치의 수단으로 전문의학 지식이 부족한 지방관리들이 백성들을 구휼하기에 편리하도록 배려한 편찬의도를 읽을 수 있다.

Ⅲ. 結 論

본 논문은 「향약본초」의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조선전기의 향약과 『향약집성방』 「상한문」의 처방에 사용된 본초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약집성방』 중 「상한문」에 대해 알게 된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상한문」은 「향약본초」에 사용된 본초만을 이용하여 처방을 구성하고 있다.

둘째, 「상한문」은 전문의학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후 향약의학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는 『향약집성방』보다 후대에 나온 우리나라 의서들의 본초부분과 비교연구를 통해 향약의 범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찰해보는 것과, 『향약집성방』 전편에 걸친 처방의 운용이 향약을 이용함에 있어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색인어〉 향약, 향약집성방, 상한문

참 고 문 헌

한국한의학연구원,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 2001.

강연석, 안상우, 『鄉藥集成方』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원문의 전산처리, 韓國韓醫學研究院 論文集 제7권 제1호(통권 제7호), 서울, 2001.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0.

김남일, 『鄉藥集成方』의 인용문헌에 대한 연구, 震檀學會; 제 26회 韓國古典研究 심포지엄 《鄉藥集成方》의 종합적 검토, 1998.

林命基, 世宗朝의 醫療政策에 따르는 藥材生産地에 對한 考察, 延世大學校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5.

金斗鍾, 『韓國醫學史(全)』, 探究堂, 1993.

陳大舜 外 2人,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서울, 2001.